

DIABLO
IV
BELIAL'S RETURN

누구나
거짓말을
한다



MATTHEW J. KIRBY

단편 소설

작가
MATTHEW J. KIRBY

일러스트
ALEX MALEEV

편집
CHLOE FRABONI

디자인 및 아트 디렉션
COREY PETERSCHMIDT

세계관 자문
IAN LANDA-BEAVERS

창작 자문
MATT BURNS, NICK CHILAN, DAVID LOMELI, RON MARZ

프로듀서
BRIANNE MESSINA, CARLOS GARCIA RENTA, TAKAYUKI SHIMBO, VALERIE STONE

SPECIAL THANKS
ROD FERGUSSON, MELISSA SMITH, RAFAEL TELL

번역
최유현, 이재권



© 2025 Blizzard Entertainment, Inc. Blizzard, Blizzard Entertainment 로고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Blizzard Entertainment, Inc.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출간: Blizzard Entertainment.

이 이야기는 퍽션입니다. 이름, 인물, 장소, 사건은 작가 또는 아티스트의 상상의 산물이거나 허구적으로 지어낸 것이며, 생사를 불문한 실존 인물, 사업체, 사건 또는 지역과의 유사성은 순전한 우연입니다.

Blizzard Entertainment는 작가 또는 타사 웹사이트 또는 콘텐츠를 관리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거짓말을 한다

아이의 아버지가 손수레로 시체를 옮긴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지난번 염소인간들이 울부짖으며 고지에서 내려와 이웃들을 난도질했을 때도 손수레는 유해로 가득 찼다. 아버지는 손수레를 써서 열병과 종기가 들끓는 마을에서 죽은 자를 실어 나르기도 했다. 교구민들이 간절히 기도를 올렸지만 소용은 없었다. 보다 살기 좋은 세상에서라면 이 작은 나무 수레로 순전히 농사일만 했을 것이다. 돌무더기나 뚱거름 더미를 나르면서.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좋은 세상에서 살던 게 아니었다. 아버지와 그의 아내는 조각난 봉우리의 단단한 땅을 일구며 간신히 먹고살았다. 아버지의 손수레에는 역병과 핏자국이 묻어 있었고, 이제는 작고 가냘픈 딸의 시신이 실려 있었다.

낮에 움직이기가 너무도 부끄럽던 나머지, 부부는 차갑고 창백한 하현달의 빛 아래 폐허로 왔다. 무너진 예배당의 골조는 위로 튀어나왔고, 들쭉날쭉 그을려 있었다. 한때 문이 있던 아치형 입구는 이 빠진 입처럼 열려 있었는데,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다 얼어붙은 듯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문지방에서 걸음을 멈췄다. 주저해서는 아니었다. 이미 둘 다 이유는 달랐으나 같은 선택을 내렸기 때문이다. 단지 다음 걸음을 내딛기가 너무 두려웠다.

두건을 쓴 자가 폐허의 그림자에서 나타나 희미한 달빛 아래 섰다. “어제 오기로 했잖소.” 그가 말했다. “진심으로 한 말이었는지 의심이 들던 참이오.”

아버지가 손수레를 내려놓았다. 허리를 펴자 척추에서 뚜두둑 소리가 났다. “쉬운 길이 아니었소.”

“꽤나 고됐겠지.” 두건을 쓴 자가 말했다. “여기서부턴 더 어려워지기만

할 거요.”

“단념시키려는 건가요?” 어머니가 물었다.

“그럴 리가.” 두건을 쓴 자가 말했다. “지금 와서 계획을 바꾸면 결과가 아주... 불쾌할 테니.”

“누구에게 불쾌한 거요?” 아버지가 물집 잡힌 손으로 주먹을 꽉 쥐었다.

“당연히 당신네지.” 두건을 쓴 자가 가까이 다가왔다. 망토 안에서 허리춤에 달린 단검 자루가 빛났다. “그리고 나한테도. 이 계약을 중개한 게 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끼어들었으니, 실망시켜선 안 될 일이야. 뭐, 하지만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지.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까지 왔다는 걸 다 잘 알잖소.”

어머니가 중개인 앞으로 다가가 두건 안을 올려다봤다. “그럼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 여기서 하려던 일이나 하죠.”

중개인이 끄덕였다. “손수레 안에 있는 게 아마...”

아버지는 딸의 시신을 가리려 덮어 두었던 천을 뒤로 당겼다. 차가운 산바람 덕에 시신의 부패는 막을 수 있었다. 원래라면 수의를 입고 묻혀야 했을 딸의 창백한 피부가 달빛을 받아 진주처럼 빛났다. 이마와 볼 위엔 부드러운 갈색 머리칼 한 가닥이 흘러내려 있었다. 아버지는 허리를 숙여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딸이 그저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것처럼. 어머니는 아이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예쁘기도 하지.” 중개인이 말했다. “몇 살이오?”

“여섯 살이요.” 어머니가 말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조의를 표하...”

“당신 조의는 필요 없소.” 아버지가 말했다. “당신 동료들이 약속을 지키기나 하면 돼.”

중개인이 고개를 숙였다. “좋소. 안에서 기다리는 중이오.”

아버지

예전에 폐허는 커다란 예배당이었고 몇몇 마을에서 주민들이 찾아왔다. 두꺼운 벽은 승배하는 이들과 탄원하는 이들에게 안전을 제공했고, 색유리는 긴 밤을 지나 희망의 약속으로 빛났다. 그것도 잠깐이었지만. 필멸자가 만든 모든 것이 그러하듯 희망도 무너졌다. 거대한 증오 이후, 모든 믿음은 힘 앞에 스러졌고, 이 예배당 또한 다른 많은 예배당과 마찬가지로 버려져 신성모독의 위험에 처했다.

중개인은 돌무더기를 뚫고 길을 안내했다. 부서진 기둥의 그림자를 지나고, 조각난 목재 교회 의자의 잔해를 타고 오르는 동안 발 아래에선 유리 조각이 부서졌다. 아버지는 바닥에 모자이크로 그려진 성스러운 얼굴의 잔해를 흘낏 바라보고는 이내 고개를 돌렸다.

“꼭... 여기서 해야 하오?” 그가 물었다.

중개인이 히죽거렸다. “독실한 것처럼 보이진 않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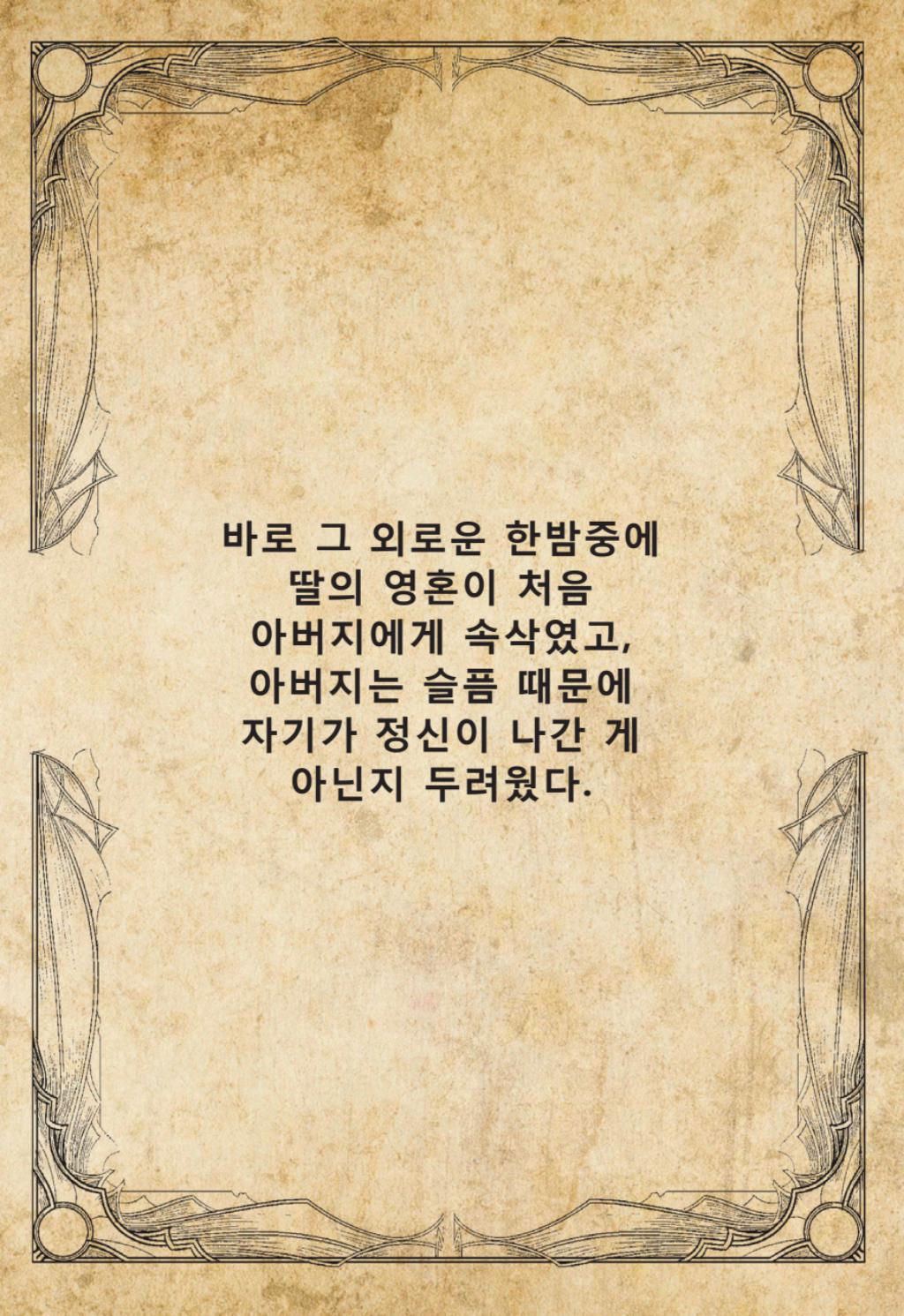
“그렇긴 하지만,” 아버지가 말했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 생각도 없소.”

“여기서 두려워할 것은 하나도 없소.” 중개인이 말했다. “세속화된 곳이니까. 한때는 어떤 신성이나 힘이 깃들어 있었을진 몰라도 버려진 지 오래요. 당신네가 하려는 일에 딱 어울리는 곳이지.”

그 말은 아버지에게 하나도 안심이 되지 않았지만, 뭐라 입을 열기도 전에 딸이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아버지는 딸의 머리를 어깨 위에 놓은 채로 시신을 안고 있었다. “두려워 마세요, 아버지.” 입술을 굳게 다문 채였지만 딸이 말했다. “있어야 할 곳에 오신 거예요.”

딸이 죽은 밤 이후로, 아이는 그렇게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다. 아내의 약이 들지 않은 그 밤, 어린 딸애가 절박하게 짹짹거리며 마지막 숨을 거둔 그 밤부터. 아버지는 초가 다 타고, 아내가 다른 아이들을 재우고도 한참이 지나도록 딸의 시신 곁을 지켰다. 바로 그 외로운 한밤중에 딸의 영혼이 처음 아버지에게 속삭였고, 아버지는 슬픔 때문에 자기가 정신이 나간 게 아닌지 두려웠다. 하지만 그건 아는 목소리였고, 무시할 수 없었다. 아이는 죽음의 틈 저편에서 손을 뻗었고, 산 자의 세계로 돌아올 수 있는 길에 대해 말했다. 아버지는 딸을 되살리겠노라 약속했다. 그 이상으로 빛을 쪘으니까. 하지만 남들 앞에서 딸의 목소리를 듣는 모습을 보일 생각은 없었다. 아내조차도 미쳤다고 생각할 테니.

중개인은 예배당 저편 구석에서 발을 멈추고 바닥의 격자문을 들어



바로 그 외로운 한밤중에
딸의 영혼이 처음
아버지에게 속삭였고,
아버지는 슬픔 때문에
자기가 정신이 나간 게
아닌지 두려웠다.

울렸다. 녹슨 경첩에서 끼익하는 소리가 밤에 울려 퍼지자 아버지는 깜짝 놀라 움찔했다. 격자문 아래에는 지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이 있었고, 바닥은 희미하게 일렁이는 붉은 빛으로 푹 젖어 있었다. 중개인이 아래로 내려가라고 손짓했지만 어머니는 멈칫했다.

“누굴 바보로 알아요? 당신이랑 저 아래 내려갈 것 같아?” 어머니가 말했다.

중개인이 한숨을 쉬었다. “탁 트인 곳에서 할 만한 일이 아니잖소. 아무리 이런 곳이라도 말이지. 거기다가, 기분 나빠지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내가 강도질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당신네 같은 사람들을 여기까지 고생하면서 끌고 왔을까?”

“가요, 아버지.” 딸이 속삭였다. “아래로 가세요.”

아버지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여보, 여기까지 왔잖소.”

“그렇다고 바보짓에다 명청이 짓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노려보며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아버지가 먼저 내려갔고, 어머니는 뒤를 따랐다. 계단을 내려가던 중 뒤에서 끼익하며 격자문이 닫히는 소리와, 열쇠가 철컥거리며 무거운 자물쇠를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부부 중 누가 한 마디 꺼내기도 전에 중개인이 말했다. “우리 안전을 위해서요. 바닥에 구멍이 훤히 뚫려 있으면 근처에 도사리는 공포스러운 놈들 구미를 당길 테니.”

아버지와 어머니는 주저하며 계속 계단을 내려갔고, 마침내 예배당 묘실에 들어섰다. 햇불이 타오르며 연기구름을 지하실에 가득 채웠다. 그 아래 습한 공기에서는 곰팡내가 풍겼다. 망자에게 바친 공물과 주도의 물건은 쌓여있는 관 밖에서 이미 썩어 버린 채였다. 더 웅장한 석관 몇몇은 도굴꾼이 강제로 뜯어 열어서 약탈한 상태였고, 고작 훑어진 뼈 몇 개가 남아 있었다. 작은 부속실에는 젊은 여자 하나와 늙은 남자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중개인은 여자를 강력한 비제레이 마법단의 마법학자라 소개했다. 여자의 머리는 진홍빛이었고, 좋은 비단과 새틴으로 만들어 수놓은 장포를 걸치고 있었다. 불빛에 비친 거만한 녹색 눈엔 오만이 일렁이는 듯했다. 작은 화로가 타오르는 제단 옆에는 늙은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는 왜소했고 술 적은 머리는 희었으며 눈은 깊었다. 남자는 솟처럼 검은 간소한 면옷을 입고 있었다. 중개인은 그를 사제라 했다.

“무슨 사제?” 아버지가 물었다.

“빛의 대성당에서 온 건 아닐세. 혹여 그게 걱정이라면.” 사제가 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주전자 바닥을 긁어대는 숟가락만큼이나 공허했다.

“빛의 대성당에서 왔다면 그것대로 놀랄 일이겠네요.” 어머니가 말했다. “이미 대성당 사람들한테 도와 달라고 갔는데, 신성모독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라트마의 사제이십니까?” 아버지가 물었다. “라트마의 사제 하나와도 얘기를 해 봤는데, 아이를 꾸짖듯이 호통만 쳤습니다. 균형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하더군요.”

사제가 고개를 저었다. “강령술사도 아니...”

“그럼 뭔데요?” 어머니가 물었다.

중개인이 끼어들었다. “도와준다잖소. 뭘 더 알아야 하지?”

어머니가 허리춤에 손을 얹었다. “어떤 사람을 상대하는지 정도는 알아야죠. 우리 같은 사람을 왜 돋겠다고 하는지도요.”

사제가 웃자 눈이 어두워졌지만, 웃는 것 말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답해주시지.” 마법학자가 말했다. “나는 약속한 것을 받으러 왔어. 가져왔나?”

“가져왔소.” 아버지가 답했다.

마법학자가 손을 내밀었다. “선불이야. 그게 계약이었잖아.”

품에 딸을 안고 있었기에 아버지는 마법학자가 원하는 것을 쉽게 꺼낼 수가 없었다. 그때 사제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리 와 시신을 내려놓게나. 마법진을 준비했으니 중앙에 두면 돼.”

아버지는 아래를 보았다. 정말로, 섬세한 마법진이 분필로 묘실 바닥에 그려져 있었다. 불가사의한 인장과 기호는 겹치는 도형의 격자에 묶여 있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장화로 선을 지우지 않으려 주의하며 마법진 안에 들어가 딸을 중앙에 눕혔다. 딸의 몸은 아래 차가운 돌바닥의 냉기를 느끼는 것처럼 웅크린 채였다. 아버지는 마법진 밖으로 나와 외투에서 깨나 오래되어 보이는 마법봉 하나를 꺼냈다. 어두운 금속으로 만들어진 마법봉은 아무리 닦아도 윤이 나지 않았으며, 뱀 한 마리가 감고 있는 가느다란 막대 형상을 하고 있었다. 보석은 박혀 있지 않았다. 오래전 뽑혀 팔렸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섬세한 표식이 새겨져 있었고, 그 표식은 바닥의 마법진에 있는 것과 비슷했다.

“약속한 물건이오.” 아버지가 마법학자에게 마법봉을 내밀며 말했다.

마법학자는 느린 동작으로 경배하듯 마법봉을 가져가 손 안에 이리저리 뒤집어 보며 꼼꼼히 살펴보았다. 사제는 쭈뼛거리며 다가가 여자의 어깨 너머로 유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커졌다. “설마... 비즈준의 물건인가?”

“전설의 마법봉이죠.” 마법학자가 말했다. “랜슬러의 작품이에요. 비제레이의 수석 제작공이었던.” 마법학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이건 어떻게 구했지?”

아버지가 어깨를 으쓱했다. “몇 세대 동안 가문에 물려져 내려오던 거요. 가보라고 해도 되겠지. 동굴에서 찾았다고는 하던데.”

“동굴이 아니라 무덤이겠지.” 중개인이 약탈당한 관을 훑듯 보며 중얼거렸지만, 아버지는 조상에 대한 모욕을 무시했다.

사제가 턱을 문지르며 마법학자에게 말했다. “조심해서 다루게나. 자네가 감당하지 못할 힘이 있을지도 몰라.”

마법학자는 발끈하는 듯했다. “내게 어떤 힘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군요.” “어쨌든 대가로 그 마법봉이면 되는 거요?” 아버지가 물었고, 마법학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한숨을 쉬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딸이 바닥에서 속삭였다. “다시 함께하게 될 거예요.”

마법학자

“내 대가는?” 사제가 물었다.

깔보는 듯한 그의 태도에 크게 화가 난 마법학자는 마법봉을 장포 안에 집어넣으며 노인을 노려보았다. 노인을 보면 이샤리 성소의 음침하고 다죽어가는 마법사를 생각이 났다. 질투심 많은 비겁자들. 애지중지하는 서약 뒤에 숨어 끝도 없는 규율로 진짜 힘을 가진 이들을 억누르려 드는 자들. 그치들이 조금만 덜 겁쟁이였다면 악마들이 칼데움을 덮쳤을 때 성소를 잃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죽은 여자애의 아버지는 사제에게 작은 가죽 주머니를 건넸다. 사제는 손바닥 위에서 무게를 가늠해 보고는 말했다. “굳이 안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약속한 대가엔 못 미친다는 건 알겠구먼.”

사제가 가죽 주머니를 꼭 쥐었다. 사제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눈을 부라리며 중개인 쪽으로 몸을 돌렸다. 중개인의 평판은 막 훼손된 참이었다. 마법학자는 아버지와 그의 아내가 지금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알기나 할지 의심스러웠다.

“제 잘못입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마법학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명청한 것인지 혹은 용감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드리기로 한 대가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쨌든 여기까지 왔습니다. 계약을 새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바라면서요.”

사제는 비웃으며 아버지 쪽으로 몸을 돌렸다. “무슨 계약?”

아버지가 더듬거렸다. “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빚은 꼭 갚습니다. 허리도 튼튼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사제가 씩 웃었다. “날 섬기겠다는 말인가?”

아버지는 창백해져 주저했다. 노인의 행동 때문인지, 혹은 어휘 선택 때문인지 당황한 듯했다. 마법학자는 그런 아버지를 나무랄 수 없었다. 그는 분명 절실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사제는 중개인 곁을 떠나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그는 발을 꼼지락거리며 용케도 아직 서 있었으나, 노인의 눈을 차마 들여다보진 못했다. 잠깐의 순간이 지났다. 마법학자는 지켜보며 기다렸다. 아버지를 동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고, 사제에게 어느 형태로든 빚을 진다는 게 어떤 일인지 경고하고 싶기도 했다. 특히 섬김의 빚에 대해. 하지만 자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었기에 그녀는 침묵을 지켰다.

“좋아.” 마침내 사제가 말했다. “자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겠네. 부탁 하나 들어줄세. 대신 자네도 내 부탁을 하나 들어줘야 해.”

“어떤 부탁이요?” 어머니가 물었다.

“공평한 부탁이지.” 사제가 말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게야. 동의하는가?”

아버지는 망설이다, 깜짝 놀란 듯이 불쑥 딸의 시신을 보았다. 잠시 기묘하게 시신을 보던 그가 말했다. “동의합니다.”

“아주 좋아.” 사제의 태도는 아까 보였던 것처럼 아주 다정하게 돌아왔다. 사제는 가죽 주머니를 돌려주었고 아버지는 다소 얼떨떨한 듯이 주머니를 받았다. “증인이 있어야겠지.” 사제가 말했다. “우리가 새 보상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니, 대가 문제는 이제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겠네.”

“제가 증인입니다.” 중개인이 확연히 안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사제가 부모에게 말했다. “편안히 있게나. 우리는 계속 준비를 해야 하니.”

딸의 시신에 작별의 눈길을 보낸 어머니와 아버지는 중개인의 안내에 따라 묘실의 주실로 돌아갔고, 사제는 의식의 지침이 나와 있는 고서를 다시 펼쳤다. 마법학자는 이런 주문을 행하는 것이 처음이었고, 이런 마법이 담긴 책을 본 것도 처음이었다. 책장이 누렇게 바랬고, 아주 깊게 앓은 가죽으로 제본해 꽤나 오래되어 보이는 책이었다. 내용의 극히 일부만 해석할 수 있었지만, 노인은 손바닥 보듯 이해하는 듯했다. 사제는 무릎에 무거운 책을 펼친 채 바닥에 다리를 꼬고 앉았고, 마법학자는 근처 벽에 기댄 채 서 있었다.

“사제가 맞기는 해요?” 그녀가 물었다.

양피지에서 눈을 떼지 않고 사제가 답했다. “그렇네만.”

“대성당 출신도 아니고, 강령술사도 아니라면...” 남은 교회는 단 하나뿐이었다. “당신... 설마 자카룸인가요, 아니죠?”

그는 고개를 숙였다. “자네 말대로라네.”

“전부 죽은 줄 알았는데.”

“진실로 그럴 뻔했지. 그러나 진정한 교단에 신실한 이가 아직 몇 명 남아 있다네.”

노인에 대한 짜증이 가시지 않았기에, 마법학자는 다시 한번 그를 건드려 보기로 했다. “악마 메피스토 때문에 그쪽 교단은 구원받을 수도 없을 만큼 타락했다고 하던데요.”

그 말에 마침내 사제는 고서에서 눈을 떼었다. 사제를 화나게 했다는 사실에 마법학자는 짧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럼 자네는?” 사제가 침착하게

물었다. 너무도 침착해 조롱하는 것처럼 들릴 정도로. “진정 비제레이 마법단 출신이 맞긴 한가?”

마법학자는 고개를 꼿꼿하게 세웠다. “네.”

“자네들이 이 세계에 처음 악마를 소환했다던데.” 그는 미소를 지었다.

마법학자는 사제의 말이 얼마나 황당한지 강조하려고 억지로 웃음을 짜냈다. “그건 아주, 아주 오래전 이야기고요.”

“물론 그렇지.” 사제가 말했다. “그렇기에 내 선조의 죄악을 내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얼마나 모욕적인지, 자네야말로 다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텐데.”

마법학자는 자존심 때문에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고, 대신 묘실을 둘러보았다. “그쪽 교단이 이런 걸 인정하나요?”

“부모의 사랑에는 빛이 가득한 법이야.” 사제가 말했다. 잠시 후 그가 덧붙였다. “자네 장포에 수련을 마쳤다는 표시나 표식은 하나도 없네그려.”

그 말에 새로 분노가 치솟은 마법학자는 벽에서 떨어져 그에게 향했다. 그가 한 말이 모두 진실이라서였다. 실제로 수련을 마치기 전에 마법단에서 쫓겨났던 것이다. 혼자서만 알고 있던 비밀이었다. “더 배울 게 없었어요.” 마법학자가 말했다. “그래서 떠난 거고요.”

“존중하네.” 사제가 말했다. “힘을 추구하려면 대담함이 필요한 법. 그러나 부활의 의식은 위험해. 자네가 자네 뒷을 다할 수 있는지 알려면, 불쾌한 질문일 수도 있었겠네만 물어봐야 했어.”

마법학자는 노인이 일리 있고 합당한 질문을 한 것을 알았고, 솔직한 답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다하고도 남죠.” 그녀가 말했다.

“자네들이 이
세계에 처음 악마를
소환했다던데.” 그는
미소를 지었다.

마법학자는 사제의
말이 얼마나 황당한지
강조하려고 억지로
웃음을 짜냈다. “그건
아주, 아주 오래전
이야기고요.”

어머니

사제와 마법학자가 주문을 응얼대고 이것저것 태우면서 바닥과 벽에 인장을 긫어 새기며 준비할 때, 어머니는 남편과 중개인과 앉아 있었다. 공기 중의 연기로 눈이 따가웠고, 묘실의 한기 때문에 뺃속까지 시렸다. 그저 이 모든 일이 끝나기만 바랄 뿐이었다.

“얼마나 더 기다려요?” 어머니가 중개인에게 물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조바심에 가까웠다.

“나야 모르지.” 중개인이 말했다. 남자는 아직도 두건을 벗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눈에 불빛이 일렁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가서 재촉할 생각도 없죠?”

“당연히 없지.” 남편이 말했다. “필요한 시간 충분히 드려야 하지 않겠소.”

남편의 희망은 붉게 달아오른 부지깽이만큼이나 속을 뜨겁게 뒤틀리게 했다. 남편은 아직도 딸이 돌아올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녀는 남편의 말에 반박할 기운도 용기도 없었다. 솔직히 말할 시간은 이미 오래전에 지났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할 줄 알았다면 그만두라고 더 열심히 설득했을 것이다. 이 저주받은 곳까지 오게 될 줄 알았으랴. 고통을 덜어 주어야 했다. 그때는 남편이 자기 방식대로 슬퍼하도록 두는 게 더 쉬워 보였다. 그러나 남편이 이 길로 나아갈 때마다 진실을 말하기가 더욱 어려워졌고, 결국은 불가능해졌다. 그래도 그녀가 한 일은 남편을 위해서 한 일이었다.

“끝까지 지켜봐야겠지.” 아내가 속삭였다.

잠시 뒤 사제가 나타나 말했다. “준비가 되었네.”

어머니와 아버지는 노인을 따라 작은 방으로 다시 들어갔다. 바닥의 동그란 마법진은 주변의 작은 마법진을 통해 네 구획으로 나뉘어 있었다. 중앙에는 수의를 벗긴 딸의 시신이 팔을 활짝 벌린 채 등을 대도록 다시 눕혀져 있었다. 연약한 양손은 각각 작은 마법진을 가리켰고, 머리와 발은 다른 두 마법진을 향해 있었다. 딸이 너무 작아 보였다. 사지 대신 창백한 흰색 나뭇가지가 달린 인형처럼. 어머니는 차마 딸의 모습을 볼 수 없어 대신 남편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딸의 모습에 입을 막고 숨을 억누르다가, 자세를 고치고는 방 안의 누구도 말한 적 없는 무언가에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는 뭘 해야 합니까?” 그가 물었다.

마법학자가 답했다. “위치로 가.”

그녀는 벌써 딸의 오른손에 있는 마법진에 서 있었다. 사제가 시신의 발

남편의 희망은
붉게 달아오른
부지깽이만큼이나 속을
뜨겁게 뒤틀리게 했다.
남편은 아직도 딸이
돌아올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녀는 남편의
말에 반박할 기운도
용기도 없었다. 솔직히
말할 시간은 이미
오래전에 지났다.

쪽에 있는 마법진에 서도록 아버지를 이끌었고, 중개인은 원손의 마법진에 서도록 했다. 어머니는 딸의 머리 쪽에 있는 작은 마법진으로 가 섰다. 딸의 생명 없는 얼굴을 바라보지 않으려 턱은 꽂꽂하게 든 채로.

굽은 단검과 작은 그릇을 든 사제가 아버지 앞으로 갔다. “이 의식에는 자네들의 피가 약간 필요하다네.” 그가 말했다. “자, 손을 내밀게나.”

이때까지 아무도 피가 흐를 거라고는 말한 적이 없지만, 어머니는 차마 거부할 수 없었다. 남편이 아무런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었을 때는 더더욱. 사제가 마침내 딸의 팔을 넘어 어머니 쪽으로 왔을 때, 그녀는 머뭇거리며 손을 내밀었다. 사제가 그녀의 손바닥 살을 그었다. 너무 깊지는 않지만 약간의 피가 그릇으로 방울지며 떨어질 정도로. 사제는 그릇과 칼을 바닥에 놓았고, 차갑고 비쩍 마른 손가락으로 어머니의 상처를 천 조각으로 간썼다.

“고통은 곧 지나간다네.” 그가 말했다. “슬픔과는 다르지. 그 슬픔도 곧 달래질 게야.”

사제는 바닥에서 피가 담긴 그릇을 다시 들고, 칼은 그 자리에 그대로 둔 채로 화로가 불타는 제단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사제는 죽은 딸의 수의를 주워 천 두 조각을 길게 찢어냈다. 그리고 방금 모은 피에 검은 깃펜을 담갔다.

“이제,” 사제가 아버지를 보며 말했다. “딸에 대한 추억을 하나 바쳐야 하네. 인생에서 딸에 대한 사랑의 진실을 말하게나.”

“사랑이요?” 아버지가 시신을 내려다보았다.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무슨 말을 할까요? 막내였고 고명딸이었습니다. 이 저주받은 세상의 기쁨이었죠. 아팠을 때도 웃음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딸애는... 딸애는 우스꽝스러운 노래를 지어내곤 했습니다. 아주 힘들게 일한 날에도 기분이 나아졌지요.” 아버지는 바닥에서 본 광경에 못이 박힌 듯했다. “지금...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뭐요?” 어머니가 물었다.

아버지가 고개를 젓고 눈을 꼭 감았다. “신경 쓰지 마. 사제님, 진실을 듣고 싶으십니까? 진실 들려드리죠. 제가 딸애를 저버렸습니다. 지켜 주지 못했다고요.” 아버지가 시신에서 고개를 들고 마법진 저편에 있는 아내를 보았다. 그의 표정은 벌써 낡디낡은 묘비만큼이나 차갑게 텅 비어 있었고, 아내는 남편이 대체 무엇을 알았는지 알고 싶었다.

“이거면 충분하네.” 사제가 피투성이 깃펜으로 수의를 긁어대며 말했다. 사제가 무언가 쓰는 것을 마쳤을 때, 그는 천 조각을 옆에 두고 두 번째 천을 집어 든 다음 기다렸다.

딸의 어머니는 그것이 자기 차례란 것을 알았다. 의식이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차마 거짓을 말할 수 없었다. 마침내 그녀는 입을 열고 남편을 향해 말했다.

“나도... 나도 개를 사랑했어요, 알잖아. 하지만 아들들만큼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그 애를 좋아한 적이 없고, 그 애도 날 좋아한 적 없을 거야. 젖을 먹일 때도 남의 애 같았습니까. 숲에 가면 애가 괴물의 아이로 바뀌어 온다는 얘기 알죠? 엄마가 돼서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건 알아요.” 어머니의 시선이 발치에 놓인 둥근 얼굴에 가 닿았다. 딸이 죽었어도 아무런 애정이 생기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녀는 부끄러움과 공포를 느꼈다. “사제님, 추억이 듣고 싶으세요? 남편한테 기쁨을 가져다준 건 기억해요. 그것 때문에 저도 약간은 딸애를 사랑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담담하게 진실을 말한 적은 처음이었다. 어머니는 너무도 조용히 가라앉은 방을 둘러보았다. 사제는 끼적이던 것을 잠시 멈췄다. 마법학자와 중개인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렸다. 남편의 마음이 찢어진 것을 알았고, 진실을 마저 털어놓는다면 남편이 완전히 부서질 것도 알았다.

“이거면 됐나요, 사제님?” 어머니가 물었다.

“그거...” 사제가 목을 가다듬었다. “그거면 됐네.”

수의에서 찢어낸 두 번째 천 조각에 쓰는 것을 마쳤을 때, 사제는 알 수 없는 언어로 몇 마디를 외우고 두 천 조각을 함께 화로에 넣었다. 천이 불타며 방을 매캐한 연기로 채웠다.

“대체...?” 마법학자가 입을 열고, 콜록거리다 다시 말을 이었다. “대체 추억을 왜 없애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사제가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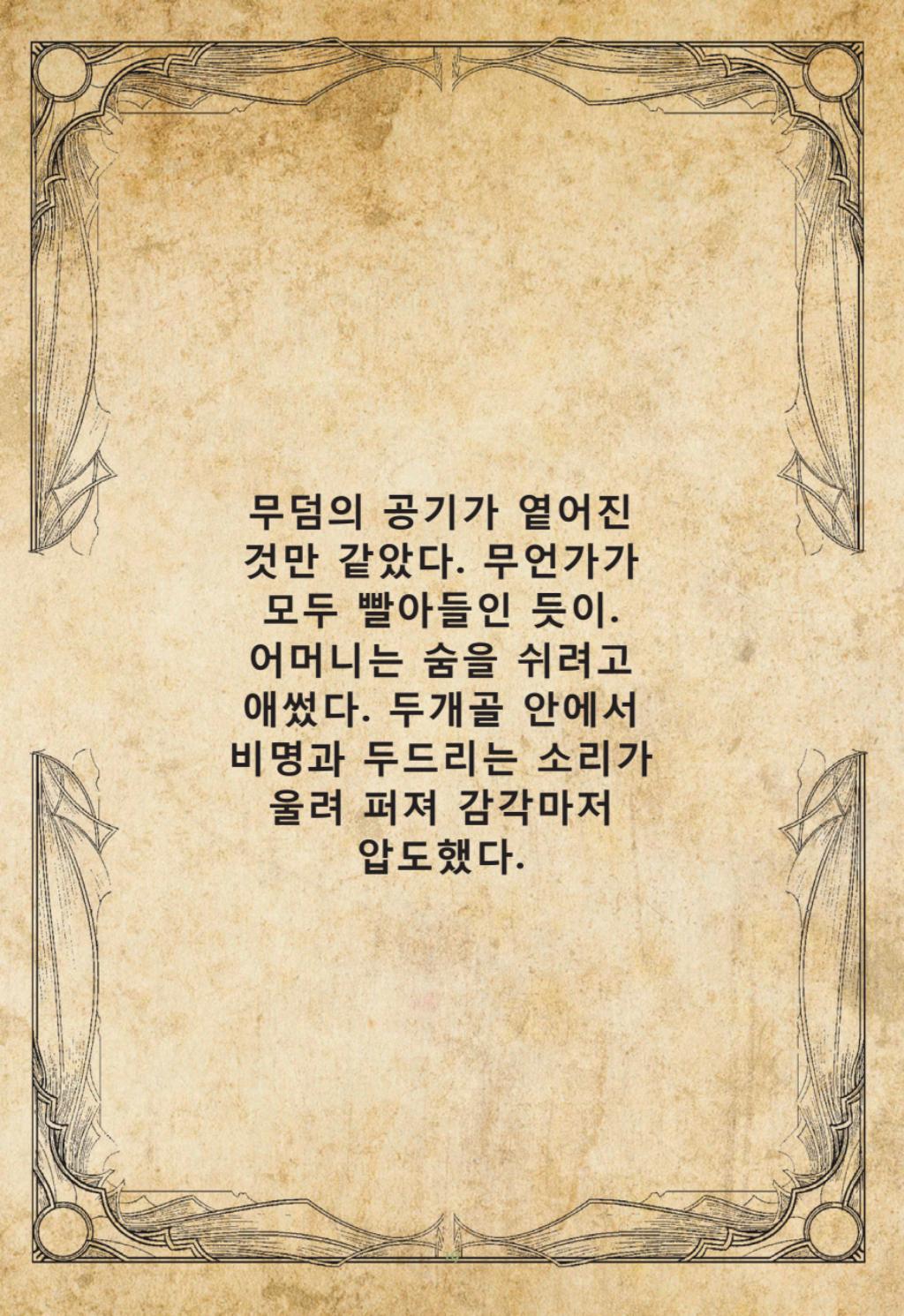
마법학자가 인상을 썼다. 혼란스러운 눈치로. “그 추억이 부모와 아이를 묶는 게 아닌가요? 왜 태웠느냐고요?”

사제는 대놓고 무시하는 듯했다. “내가 실수를 했다고 생각한다면, 부탁하건대 고서를 읽어 주게나. 교정은 언제든 환영이니.” 사제가 옆의 제단에 놓인 무거운 고서로 손짓했다.

마법학자는 말을 삼켰다. “아뇨. 그쪽이 맞겠죠.”

사제가 끄덕이더니, 팔을 들어 올렸다. 목소리는 마법학자와 함께 울렸다. 마지막 주문의 단어를 묘실을 메우도록 우렁차게 외치자, 어머니는 메아리 끝에서 귓가에 돌아오는 속삭임을 들은 것 같다고 생각했다. 횃불이 희미해졌다. 어쩌면 시야가 흐려졌을지도 모른다. 무덤의 공기가 열어진 것만

같았다. 무언가가 모두 빨아들인 듯이. 어머니는 숨을 쉬려고 애썼다. 두개골 안에서 비명과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져 감각마저 압도했다. 어머니는 몸 안에 열리는 심연에 정신이 삼켜지리라 생각했지만, 갑자기 압력이 사라졌다. 그녀는 가쁜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뜬다.



무덤의 공기가 열어진
것만 같았다. 무언가가
모두 빨아들인 듯이.
어머니는 숨을 쉬려고
애썼다. 두개골 안에서
비명과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져 감각마저
압도했다.

사제

의식은 진정한 목적을 달성했고 저지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묘실에 있던 다른 자들이 그걸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고, 그걸 알아차리기도 전에 죽을 터였지만, 그렇다고 바뀌는 일은 없었다. 사제는 주인을 잘 섬겼다.

바닥에 눕힌 작은 몸이 격렬하게 흔들렸고, 어머니는 새된 비명을 질렀으며 아버지는 기쁨의 포효를 토해냈다. 아버지는 꿈틀거리며 살아나는 시신 옆에 쓰러져, 시신을 끌어안고 흐느꼈다. “숨을 쉬어!” 그가 말했다. “살았다고!”

“아냐.” 어머니는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눈과 입은 떡 벌어져 있었다. “말도 안 돼.”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지 못한 듯했다. 어쩌면 마음속에 들리는 더 큰 소리를 듣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네 말이 맞았단다.” 그가 속삭였다. “네 말이 맞았어.”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허리는 구부러져 어깨가 축 처진 채 털썩 무너졌다. 사제의 단검이 앞의 돌바닥에 놓여 있었다. “바보 같으니.” 그녀가 속삭였다. “우린 다 망했어.”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 때문에 얼굴의 때가 온통 얼룩져 있었고, 그는 아내를 보며 혼란스럽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망했다니? 마법이 통했잖아! 우리 애가 살아났다고!”

“그것 때문에 전부 다 죽을 거야!” 아내가 남편에게 광적으로, 발작하듯 소리쳤다.

마법학자가 아내에게 다가갔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는 구제할 길 없는 공포로 창백해진 채였다. “항상 아팠어요. 그게... 그게 옳은 일 같아서... 아니 옳은 건 아니라도, 그래도 최선 같았어요.” 그녀가 배를 움켜잡고 몸을 앞뒤로 흔들기 시작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거야.” 어머니가 훌쩍였다. “가족을 위해서 한 거라고!”

“뭘 했어?” 남편이 물었다.

딸의 어머니는 사제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고했다. “이 주 전에, 나가서 불쏘시개를 모으는 꿈을 꿨는데... 내가 숲에 혼자 있을 때 늑대 하나가 날 덮쳤어... 흉측한 짐승이. 그... 그런 건 본 적이 없어서 날 갈가리 찢어 버릴 것만 같았어. 근데 평범한 늑대가 아니었어. 해골에서 눈알이 타올랐고, 말도 할 수 있었어. 여보, 맹세해요. 진짜였으니까, 늑대가 나한테 말을 걸었어!”

“뭐라고 했는데?” 마법학자가 다그쳐 물었다.

어머니가 그 기억에 몸서리를 쳤다. “내가 사랑하는 모두를 사냥하겠다고 했어요... 남편도, 애들도... 그리고 천천히 먹어 버리겠다고. 살아 있는 동안 뼈에서 골수를 빨아먹겠대요... 자기 말을 들어 주지 않으면.”

“뭘 한 거야?” 남편이 다시 물었다.

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늑대가 그렇게 하면 우린 살려 주겠다고 했어요... 대신...”

“대신 뭐?” 아버지가 포효했고, 아내는 움츠러들었다.

“우리 막내를 희생하라고요!” 어머니가 말했다. “어쨌든... 어쨌든 죽었을 거야, 아직 모르겠어요? 나도 개 돌보느라 지긋지긋했어. 그냥 거머리 같은 애였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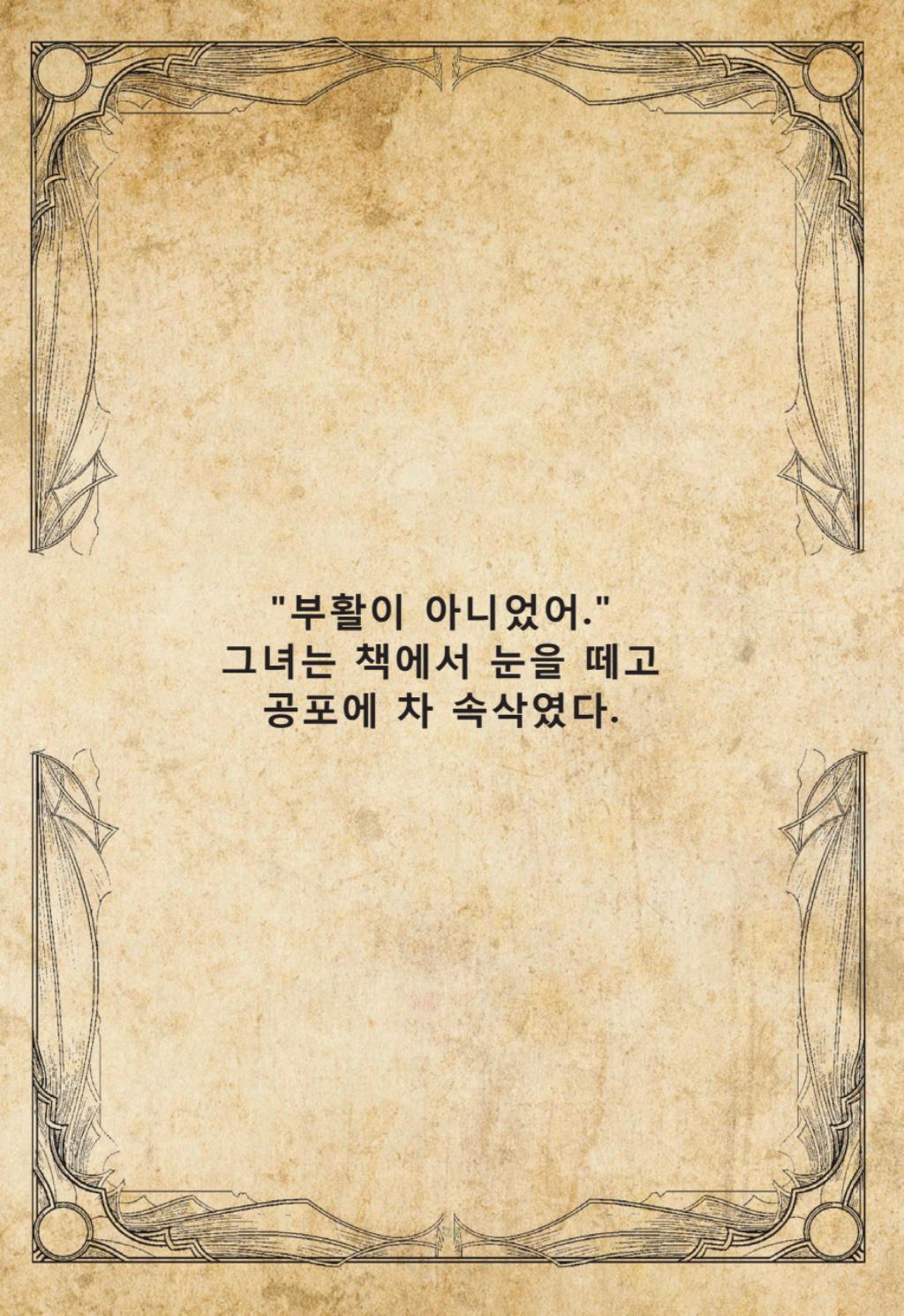
이 말을 듣자마자 마법학자는 사제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작은 방을 가로질러 제단으로 가, 고서를 불들고 펼쳤다. 사제는 그녀를 막으려 들지도 않았다. 책을 읽을 만한 지식과 실력이 있었더라면 의식이 시작되도록 두지도 않았을 것이다. 지금 와선 진실을 해독하더라도, 뭐든 해내기엔 역부족일 따름이었다.

“당신이... 독을 먹였군. 그깟 꿈 때문에?”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머릿속에 차마 담을 수도 없는 생각이라는 듯이. “자기 혼자 살자고 딸을 죽였어?”

“아냐!” 어머니는 울부짖었다. “당신 살자고! 우리 아들들 살리자고 그런 거지!” 어머니가 양손으로 이마를 부여잡았다. “근데 이제 없던 일로 했잖아? 이제 늑대가 올 거야! 우릴 먹어 치우려 올 거라고!” 어머니는 바닥에 놓인 단검을 보았고, 공포에 질려 그것을 주워 들고는 딸을 두 번째로 희생하려 달려들었다.

아버지도 저절로 몸을 날려 딸의 시신에서 펼쩍 뛰어 아내를 가로막으려 들었다. 서로 부딪친 부부는 몸싸움을 벌이며 둑굴고, 서로를 불들다 굽어 대고, 애원하면서 비명을 질렀다. 그러다 어머니가 한 번 울부짖었다. 남편이 구르며 어머니에게서 떨어지자, 그녀의 심장과 목 사이 가슴에 꽂힌 단검이 드러났다. 아내의 눈은 튀어나왔고 목에서는 숨소리가 쉬쉬거리며, 피가 꿀꺽거리고 턱이 떨렸다. 남편은 울부짖으며 아내 옆으로 기어갔다. 아내의 볼, 목, 칼자루에 조심히 손끝을 대며, 아무 말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품에 안긴 아내가 죽을 때까지.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고, 사제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중개인도 한 걸음 물러나 사건이 벌어지는 걸 관망하는 것도 보았다. 한편, 마법학자는 싸움을 말릴 수도 있었을 만큼 부부를 신경 쓰고 있었지만, 닥쳐드는 깨달음에



"부활이 아니었어."
그녀는 책에서 눈을 떼고
공포에 차 속삭였다.

온통 정신이 팔려있던 참이었다.

“부활이 아니었어.” 그녀는 책에서 눈을 떼고 공포에 차 속삭였다.

“아니라고?” 사제가 말했다. “그렇다면 말해 보게나, 스승들에게서 배울 것이 남지 않았다던 비제레이여. 저건 무엇이었는가?”

“아버지?” 딸의 시신이 말했다. 마침내 떨리며 눈이 뜨인 채.

“여기란다!” 죽은 아내를 뒤로하고 아버지는 서둘러 어머니의 피로 뒤덮인 딸의 곁으로 갔다. “내가 왔단다, 우리 아가.”

마법학자는 장포에서 고대의 마법봉을 다시 꺼내 들었다. “저건 네 딸이 아냐.” 그녀가 말했다. “얼른 떨어져. 당장.”

“무슨 소릴 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애정을 담아 딸의 이마를 쓰다듬고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빗어 넘겼다. 이성은 이미 잃은 채였다. “한번 보세요. 이게 제 딸이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몰라.” 마법학자는 소녀의 시신에 마법봉을 겨누고, 제단과 사제에게서 옆걸음을 치며 말했다. “난 저 주문을 조금밖에 못 읽거든. 근데 이거 하나는 알아. 그건 부활이 아냐. 소환이었지.”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아버지가 말했다. “저한테 계속 말을 하면서 모든 걸음을 안내했습니다. 자기를 되살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저를 인도했다고요.”

“속은 거지.” 떨리는 목소리로 마법학자가 말했다. “너만 속은 게 아냐. 우리 전부 속았어.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어. 완전히 사로잡히기 전에 내가 시신을 없애 주지. 물러나. 아니면 너도 같이 없앨 수밖에 없어.”

“과연 없앨 수나 있겠나?” 사제가 물었다.

마법학자는 자세와 마법봉을 고쳐 잡았다. 사제는 마법학자가 스스로에게 품은 의심과, 자기 자신에게서도 숨긴 부족함에 대한 공포를 깨뚫어 보았다.

“그 정도 실력이 있다고 진정으로 믿나?” 사제가 경멸로 떠보듯 물었다. “자네에게 정말 강력한 힘이 있더라도, 갈고 닦진 못한 아이일 뿐일세. 참을성이 없지. 모르는 것을 인정할 용기가 없어. 그렇기에 자네 선조들이 저지른 크나큰 죄악을 다시 반복하는 게야.”

“아냐.” 마법학자가 속삭였다. 그녀는 그림자 속에 따로 떨어져 있던 중개인에게 절박하게 말했다. “같이 막아야 해!”

“같이?” 그가 물었다. “이 거래에서 내 할 일은 이미 끝났는데.”

마법학자는 그에게 저주를 퍼붓고는, 고대의 마법봉을 시신에 겨누어 주문을 외웠다. 사제는 그녀가 화염탄을 날리리라 예상했지만, 오히려 불꽃이 역으로 타올라 마법학자를 휩싸고 장포를 태웠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고, 꿈틀거리며 굴러댔다. 지옥의 불길을 끄려는 시도였을 것이다. 고기 타는 냄새로 공기가 짙어졌다. 마법학자는 비틀거리며 간신히 일어나, 멈추지 않고 짐승처럼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방에서 달려 나갔다.

중개인이 말없이 단검을 뽑고 그녀의 뒤를 따르는 동안, 사제는 성큼성큼 마법학자가 고대 마법봉을 떨어뜨린 곳으로 갔다. 만지면 뜨겁지 않을까 생각했으나, 마법봉을 줍자 금속은 쑤시는 손가락 마디에 즉시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차가웠다. 아버지는 죽은 아내 옆 바닥에 앉아 딸의 몸을 안고 있었다. 완전히 망연자실해 보였다.

잠시 후, 마법학자가 비명을 멈췄다.

그리곤 중개인이 고개를 저으며 터덜터덜 방으로 들어왔다. “난리통에 원치 않는 주의를 끌게 생겼군.” 단검은 피투성이였고, 사제의 손에 들린 마법봉을 본 중개인은 그것을 단검으로 가리켰다. “그건 내가 가져가지.”

중개인

사제가 코웃음을 쳤다. “이 유물은 자네보다 훨씬 능력 있는 이들의 것일세. 이걸로 무얼 하려고? 팔 것인가?”

중개인의 목소리가 음침해졌다. “팔든, 벽난로 선반 위에 걸어 두든, 요강찌꺼기를 긁어내든 당신 알 바 아니오. 계약한 조건은 지켰잖나. 그 마법봉은 당신이 받을 대가에 없었어.”

“협상할 생각은 없네.” 사제가 말하더니, 거칠게 피를 말리는 저주를 외쳤다. 중개인은 명청이가 아니었다. 그는 준비를 한 채로 묘실에 들어왔다. 목에 건 목걸이는 마법봉을 팔면 받을 돈과 비슷한 금액을 지불한 물건이었고, 사제의 흑마법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

“진저리가 나는군.”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천박한 방식은 질색일세.” 중개인은 사제가 목걸이로 막아낼 수 없는 다른 주문을 외우기 전에 벌 생각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사제는 보기보다 민첩했다. 사제가 단검을 피하고 방의 먼 쪽으로 훌쩍 뛰었다. 사제와 중개인 사이 바닥에는 아버지가 정신을 충분히 차리고, 아직도 딸이라고 믿는 시신을 보호하고 있었다.

사제가 아버지에게 외쳤다. “자네! 내게 빚을 진 게 있지 않나! 저자를 죽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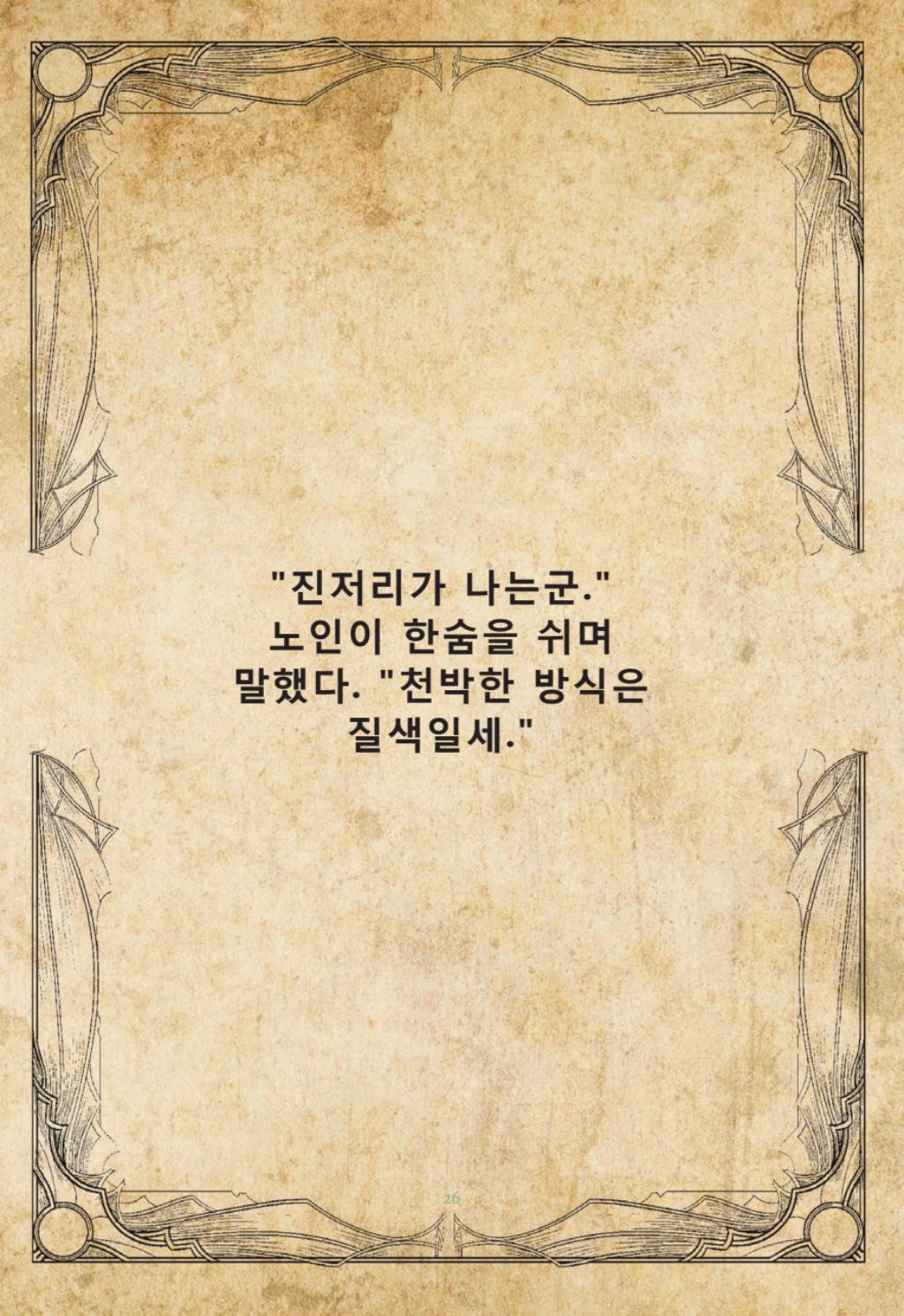
설령 아버지가 그 말을 따랐다 하더라도, 중개인은 농부 따위는 두렵지 않았다. 칼이 아내에게 꽂혀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농부는 무장도 없이 슬픔에 혼란스러운 채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사제를 당황케 했다. 그저 노인을 명청히 바라보기만 했을 뿐.

“일어나!” 사제가 쑥쑥거렸다. “저자를 죽여!”

중개인은 잠깐의 혼란을 터타 날듯이 방을 가로질러 노인을 찔렀다. 충격을 받은 사제는 신음을 내며 갈비뼈에 꽂힌 단검을 내려다보았다. 금속 마법봉이 떨어져 판석에 울렸다. 사제는 떨리는 양손으로 단검의 코등이를 쥐었으나,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몰랐다. 그리고 사제는 중개인의 얼굴을 보았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하얀 눈썹을 높이 추켜세운 채로.

“왜?” 중개인이 물었다. “네 주인이 여길 살아서 떠날 수 있다고 약속하던가?”

사제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으나, 입에 피가 차올라 사방에 튀어 시뻘겋게 몸을 적셨다. 중개인이 한 걸음 물러나 단검을 비틀어 뽑았다. 사제는 바닥에 쓰러졌다.



"진저리가 나는군."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천박한 방식은
질색일세."

“잘했구나.” 딸의 시신이 말했다.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딸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한 게 없단다. 전부...”

“너 말고.” 딸이 중개인을 보며 말했다.

아버지가 똑바로 앉아 혼란에 차 머리를 기울인 채 웃었다. 그의 착각은 거의 안쓰러울 정도였다.

“저분은 당신 딸이 아니오.” 중개인이 말했다.

“저건... 거짓의 군주일세.” 죽어가는 사제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벨리알 말이야.”

중개인이 큭큭거렸다. “알고 있었군.”

“당연히... 알고 있었지.” 사제가 기침을 하며 판석에 피를 흘뿌렸다. “저것이 날 보냈으니.”

벨리알은 죽은 딸의 몸을 일으켜 세웠고, 딸의 입을 통해 사제에게 말했다. “너도 나를 잘 섬겼다.”

사제는 악마를 마주하려 고통스럽게 몸을 틀고 신음하며 얼굴을 징그렸다.

“난... 네놈의... 종이 아니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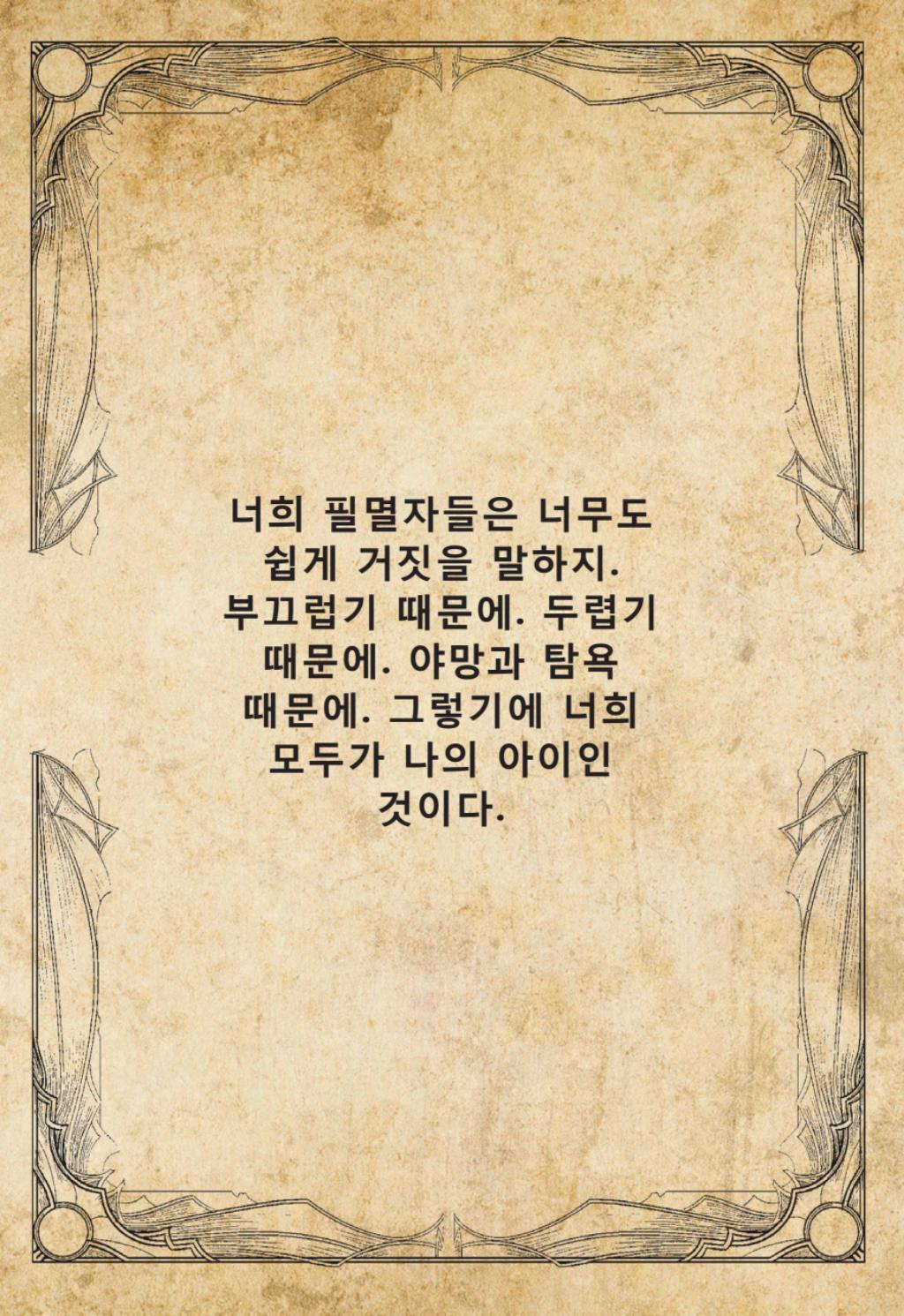
벨리알이 웃었다. “누구든 거짓을 말하는 자는 나를 섬기는 것이다.” 악마는 작고 여린 발을 가볍게 옮기며 사제에게 가, 옆에 웅크린 채 속삭였다. “네가 섬긴다고 믿는 자를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모든 힘을 다한 사제는 자신이 흘린 피 웅덩이에 볼을 묻고 쓰러졌다. 말할 기운도 거의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 숨을 내쉬며 사제는 속삭였다. “네놈은... 그분의... 종이...”

“아가?” 죽은 소녀의 아버지가 팔을 옆에 늘어뜨린 채 무릎을 꿇고 말했다. “대체... 대체 무슨 사악한 소리를 하는 거니?”

벨리알이 웃었다. 죽은 소녀의 목에서 낮은 킬킬거림이 울려 묘실의 벽을 긁어대는 듯했다. “아직도 스스로에게 거짓을 말하는구나.” 거짓의 군주는 깡총거리며 아버지에게 다가가 몸을 숙여 어린애 다루듯 얼굴에다 대고 크게 말했다. “네 딸은 죽었다. 네 아내가 죽었지. 알고 있었지 않느냐? 딸을 지키지 못했어. 그러니 내가 하라는 그대로 한 것이 아니냐. 왜 손수레에 딸의 시체를 실어다 내게 가져왔느냐. 아직 모르겠느냐? 너, 네 아내, 마법학자, 사제, 심지어 너희를 모은 중개인까지... 모두 네 거짓말 때문에 여기 모인 것이다. 너희 필멸자들은 너무도 쉽게 거짓을 말하지. 부끄럽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야망과 탐욕 때문에. 그렇기에 너희 모두가 나의 아이인 것이다.”

“아니야.” 아버지가 목뼈가 늘어져라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가,



너희 필멸자들은 너무도
쉽게 거짓을 말하지.
부끄럽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야망과 탐욕
때문에. 그렇기에 너희
모두가 나의 아이인
것이다.

아니란다!” 아버지는 훌쩍 뛰어들어 필사적으로 악마를 품에 끌어안고, 죽은 소녀의 흰 수의에 대고 흐느꼈다. “믿을 수가 없어! 믿지 않을 거다!”

“믿든 말든 상관없다.” 그러더니 악마는 아버지를 팔로 끌어안아 조여 갈비뼈를 부러뜨렸다. 아버지는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폐에서 모든 공기가 빠져나간 상태라 입을 벌리고 충혈된 눈으로 묘실의 아치형 천장을 올려다볼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그는 진실을 보았다.

악마는 아버지의 산 육신을 차지했고, 육신을 통해 바닥을 때리고 굽으며 지났다. 떨리는 덩어리에서 살점이 찢어져 뿔과 가시 돋친 사지가 튀어나오고, 끔찍한 입과 구슬 같은 눈이 자라나는 소리로 방이 울렸다. 마침내 벨리알의 완전한 형상이 자라났다.

중개인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주인님, 명을 내리십시오.”

벨리알이 깔깔 웃었다. “굽실거리면 내가 살려주리라 바랐더냐?”

“뜻하시는 대로 저를 부리옵소서.” 중개인이 말했다. “성역 전부가 주인님의 것입니다.”

“아니다.” 벨리알이 말했다. “메피스토가 아직도 이 땅을 걸으며 씨를 뿌리고 있지 않느냐. 허나 이제 내가 왔다. 성역은 내 것이 아니다. 아직은.”

중개인은 앞에 선 공포에 대한 경외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러나... 누구든 거짓을 말하는 자는 주인님의 종이니이다.”

벨리알의 변하는 형상이 제단을 향해 떠오른 채 움직였다. “그들의 거짓으로는 부족하다. 성역의 아이들이 진실이라는 게 있다는 믿음을 멈추기 전까지 성역은 내 것이 아니다.” 벨리알이 몸을 돌렸다. “그러니 아직은 너를 살려 두겠다. 마법봉을 가져가라. 가서 내 복음을 전파해라.”

중개인이 다시 한번 고개를 조아렸다. “기꺼이 그리하겠습니다, 주인님.”

작가 소개

Matthew J. Kirby는 평단의 호평을 받은 수상 작가로, *The Clockwork Three*, *Icefall*, *The Lost Kingdom*, *A Taste for Monsters*, *Star Splitter* 등의 여러 소설을 썼다. 그는 또한 디아블로 세계관에서 로라스의 책과 프라바의 책을 썼으며, 어쌔신 크리드 세계관 소설도 쓴 바 있다. 그의 작품은 에드거상(최우수 청소년 미스터리 부문)과 미국 PEN 센터상(아동 문학 부문) 등 수많은 수상 경력에 빛난다. Matthew J. Kirby는 현재 아이디호에서 가족과 살고 있다.